

이불·정서영·김소라의 '백 투더 퓨처'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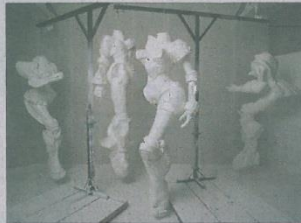
August 26, 2016 | 정재숙 기자

이불·정서영·김소라의 '백 투더 퓨처'

아트선재센터 기획전 '커넥트1'
"20년 되돌려 미래 미술관 고민"

사람만 옛 일을 회상하는 건 아니다. 미술관도 과거 전시를 돌아본다. 그대로 재현하기도 하고, 재해석도 시도한다. 건물 수선을 위해 지난해 문을 닫았던 서울 율곡로 아트선재센터가 공사를 병행하며 20여 년의 여정을 돌아보는 기획전을 마련했다. 27일 개막하는 '커넥트1:스틸 액츠(Connect1: Still Acts)'다. 설치미술가 이불(52), 정서영(52), 김소라(51) 세 여성 작가를 초대해 '그 때'를 돌아보며 '시간 잇기'를 시도했다.

3층에는 이불 씨가 1998년 아트선재센터에서의 첫 번째 개인전에 내놓았던 '사이보그' 연작과 술한 화제를 몰고 왔던 '장엄한 광채'가 세월을 거슬러 돌아왔다. '설치미술의 여전사'란 별명을 얻을 만큼 남근 중심 시각문화를 비판했던 이 작가의 통렬한 문제의식이 여전히 번득인다. 인간과 기계의 접합, 여성과 테크놀로지의 경계를 깨부순 '사이보그'는 그의 작품세계를 포괄하는 상징처럼 전시장 천정에 걸려 관람객들 시



설치미술가 이불씨가 1998년 아트선재센터에서 발표한 '사이보그' 연작. [사진 이불 스튜디오]

선을 사로잡았다. 1997년 뉴욕 현대미술관(MoMA)에 날 생선을 전시했다가 썩어가 는 냄새 때문에 작품을 철거당하는 사건으로 유명세를 치른 '장엄한 광채'가 20년 만에 재현된 것도 의미 있다. 이 작가는 "이런 때가 아니면 다시 제작할 기회가 없는 지라 작가로서 신나고 기쁘다"고 말했다.

텅 빈 듯 텅 빈 공간이 눈을 시원하게 만드는 2층은 정서영 작가의 2000년 개인전에 나왔던 '전망대' '꽃' '수위실' 세 점으로 채워졌다. 2m 높이 나무 조각 '전망대'는 도심 곳곳에 공사장이 많았던 시대의 반향이

다. 수장고에 보관되는 상황에서 나무가 뒤틀리고 일부 내려앉아 일종의 생명체이기도 한 작품의 보존에 관한 주의를 환기시켰다. 텅 빈 벽에 기괴하게 붙어있는 '모르는 귀'는 요괴의 귀처럼 삐죽한 모습으로 공간의 흐름에 리듬을 불어넣는다.

1층은 김소라 작가가 2004년 2인 전에 선보였던 프로젝트 '라이브러리'를 되살려냈다. 작가가 지인들에게 받은 100권의 책 중 골라낸 문구와 면면을 활용한 작품은 관람객이 선별해 책으로 복사해 가져갈 수 있게 했다. 김 작가의 구성에 따라 다양한 형식으로 진행될 행위예술도 즐길 수 있다.

전시를 기획한 김선정 관장은 "그동안 복합문화공간으로 앞만 보고 달려온 아트선재센터의 뒤를 돌아보고 미래의 미술관, 전 시장은 어떠한가 하는가에 대해 스스로 묻는 하나의 형식으로 전시를 마련했다"고 설명했다. 김 관장은 2016년 재개관을 계기로 '커넥트(연결)' 시리즈를 통해 소장품을 현재 시간으로 불러내 공공과 의견을 나누는 장으로 활용하겠다고 밝혔다.

11월 20일까지. 02-733-8945.

정재숙 문화전문기자 johanal@joongang.co.kr